

영광군 “위급할 땐 안심비상벨을 누르세요”



영광군은 군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안전사각지대 제로화 위해 안심비상벨 설치 범죄취약지·공중화장실 등 양방향 통신 가능

범죄취약지역과 공중화장실 등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안심비상벨을 설치해 치안서비스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안심비상벨은 위급상황 발생 시 벨을 누르면 사이렌이 울리고, 24시간 운영하는 영광군 CCTV통합관제센터로 연결되며, 주변에 설치된 CCTV가 자동으로 현장영상을 촬영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설치한 안심비상벨은 민선8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중화장실, 어린이보호구역, 여성안심귀갓길 등 10개소에 추가 설치했다. 영광군은 이번에 설치한 10개소를 포함 총 56개소에 안심비상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찰서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범죄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여성, 어르신

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서 112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현장출동이 신속히 이루어져 빠른 상황파악 및 대처가 가능하다. 강종만 군수는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2025년까지 안전취약지역 100여 개소를 지정하여 안심비상벨을 확대 설치해 각종 범죄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원예작물 폭설 및 한파 대비 관리 철저 당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원예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농가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저온에 약한 원예작물은 한파와 폭설이 지속될 경우 식물 조직 세포가 얼어버리는 피해 발생이 우려되며 겨울철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포도의 경우 동해 한계온도는 -13~-20℃로 이 기온이 6시간 이상 지속되면 매우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된다. 또한 재배요인에 의해 과다 착과한 나무와 늦가을까지 영양생장이 지속된 작물의 경우에도 저장 양분이 부족해 피해에 취약하다. 시설하우스는 비가람 사이의 방충, 방조망을 제거해 폭설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작물이 들어 있는 시설은 보온 및 단열 성능이 우수한 피복재를 사용하고 틈새를 최소화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 과수는 대목과 주간부를 지면에서 1m 정도 높이에서 두꺼운 부직포, 볏짚, 보온재 등으로 피복을 해야 한다. 작물이 동해를 입은 경우 수피가 터진 부분을 노끈이나 고무밴드 등으로 묶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야 수세회복에 도움이 된다. 함평=김광춘 기자

신안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신안소방서 개청 후 응급처치 교육 기대감 높아져

신안군은 올 한해 14개 읍·면을 순회하며 1,480명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총 66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는 평년대비 7배에 이르는 수치로 11월 신안소방서 개청 후 응급처치 교육의 기대감을 느낄 수 있다. 응급처치 교육은 심폐소생술을 위한 이론교육과 심폐소생술을 연습할 수 있는 교육용 마네킹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해 현장감 있는 실습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경로당으

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한층 더 가깝고 쉽게 이론적 원리 및 실제상황에서의 대응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군 관계자는 응급상황에 처하면 대부분 당황해서 응급처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꾸준히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을 일회성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행사나 축제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응 능



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이택주 기자



영암군, 공직자 ‘가사분담 사진 및 양성평등 표어’ 전시

영암군은 지난 5월부터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공직자 솔선 가사분담 운동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가사분담 운동은 영암군 전 공직자가 가사분담표를 직접 작성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지난 19부터 21일까지 공직자 가사분담 사진 및 양성평등 표어 공모작품을 청사 내 전

시하는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채로운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가정에서부터 남녀가 평등한 영암군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수도과·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가정용 월 3톤까지 감면

목포시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2월 정기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시는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와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의 월 사용요금 중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26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한데 신분증, 감면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수도요금 고지서를 지참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목포시 수도과(수문로 32, 트윈스타 5층)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요금부터 감면되며, 시행 이후 최초인 2023년 2월 정기고지분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고 사용량이 3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인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 가구도 빠짐없이 신청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다자녀(19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 가정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 가정용에 한해 상·하수도요금 사용량의 15%를 감면하고 있다. 신청은 목포시 수도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목포=기동취재본부

무안군,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

무안군은 군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해소와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연중 무휴 심야시간대에 일반의약품 판매와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 공공심야약국은 무안군과 무안군약사회의 협의를 거쳐 전남도에 추천하는 방법으로 남악에 위치한 바른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은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심야시간대인 밤 10시~12시까지 운영되며, 약사가 복약지도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야간과 휴일 진료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 약사법상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명칭과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말한다. 무안=이기성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